

요약

서론 : 골로새서의 배경 (골2장)

본론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1.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자 (골1장)

2.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 (골3장)

결론 : 골로새서를 통해 붙잡을 실천 미션 (골4장)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제목 때문에 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참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별로 흠이 없구나, 모델이 된다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교회에도 많고, 램넛들 중에도 많다. 공부하고 일하고 바쁠 텐데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참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구나 싶다. 어떤 분들은 교역자들도 빠지는 새벽기도에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2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 나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지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 램넛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1등급이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목사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나? 그 안에서 나름대로 완전한 것이 있다. 어제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웃음) 가끔 보면 김치찌개에서 다른 맛이 나고 그랬는데, (웃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레시피를 따라했다고 하더라. 완벽한 레시피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나야 한다. 요즘 국무총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 지금부터 국무총리에 뽑힐 수 있는 인물로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야 하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대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시기 않았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에바브라에게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기도제목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또한 힘썼다고 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도록 양육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서론 : 골로새서의 배경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골로새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문제점을 서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대부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다.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양육된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다. 이런 인물들이 에베소에서의 전도운동을 통해 많이 일어났다. 놀라 같은 제자가 두란노 서원에서 세워졌다. 2년 동안 말씀운동을 하는데 그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제일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을 것이다. 이들이 흠어져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대표적인 교회들로 자랐던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300곳의 현장에서 받게 되기를 바란다. 램넛에서 모든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300곳에 말씀운동을 펴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개인타락방, 정시기도, 성경 읽는 것부터 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1) 골로새서의 특징

- ①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킨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라는 그 먼로까지 찾아왔다. 보고하고 의논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에바브라가 그 멀리까지 가서 보고하고 물어보지 않았나?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대로 적용해서 사역을 했다. 이것이 성령인도를 받는 영적인 소통이다.
- ②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한다. 55절 정도가 똑같은 구절로 쓰여졌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이므로 비슷한 영적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③ 골로새서는 AD 65년 경에 쓰여졌는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에바브라가 아니라 두기교였다. 두기교가 주로 했던 일이 심부름이다. 메시지를 쓰면 가져다주는 역할이다. 심부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무거운 양피지를 먼 거리로 전달하는 것인데, 두기교는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다. “저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시켜주세요.” 그랬다면 이 편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되었겠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램넛들이 심부름을 너무 잘 하고 있다. 교역자들의 오펜팔, 원팔이 되어서 심부름을 하는데, 한 마디를 던지면 맛있는 음식까지 가지고 온다. 우리 램넛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먹을 것도 사 주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2)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골로새는 에베소에서부터 10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있었다. 여기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 ① 골2:8에 보면, 그리스 철학 사상과 학문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다. 램넛들이 속으면 안 된다. 대학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메시지가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학문은 뭔가? 전통이다. 지식이 쌓여왔을 뿐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천재였지만, 마지막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다. 양자역학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책을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웃음) 세상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의 원리를 알고 발견한 게 아니고 모르고, 우연히 발견했다. 집사님과 지교회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 전부터 숨겨 두셨다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셔서 이용하게 하신 것이다.
- ②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상이 영지주의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것이 영지주의다. 그래서 육을 학대하거나 타락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바울은 이를 두고 말했다. 골2:9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거하신다는 것이다.
- ③ 유대의 할례주의 사상이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2:11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결과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문제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란다. 과거의 할례는 상징에 불과하다. 그것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 ④ 유대의 율법 사상이 들어왔다. 음식, 절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2:16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 ⑤ 경건주의와 천사 숭배사상이 들어왔다. 종교인들은 거짓말로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골2:18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복음도 없는데 거룩하게 한다. 그게 꾸며낸 것이다. 그 안에는 거룩한 게 가득하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만대하.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깨끗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흠뻑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1.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완전하게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완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구원도 삶도 공부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지금은 부족해도,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 “어떻게 저 사람은 대하도 잘 안 나왔는데 저렇게 훌륭하고 완전할까?”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1) 우리로 죄 사람을 얻게 하신 분이다. 골1:14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람을 얻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1:15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 (3)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골1:15 후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에수를 믿은 물리학자가 말했다. 우주 만물은 지금 엄청난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힘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주는 산산조각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엄청난 힘을 주셔서 불들어주셨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에수 믿은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있구나 싶었다. 성경은 몇 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를 밝히고 있다.
- (4) 교회의 머리시다. 골2: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목회자, 중직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 (5)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골1:19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생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신분과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마28:18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다. 태양도 타게 하시고 별도 반짝이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신다.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는 날아가고 있다. 은하계는 날아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다. 여러분이 은하수를 하나씩 손에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 갤럭시.

(웃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보라.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불가능은 없다. 이것을 놓치거나 세상에, 사단에게, 질병에 지는 것이다. 이것 놓쳐서 정치가 부패하고 있다. 우리 후대가 이 현장을 모두 질서정연하게 바꾸게 되기를 바란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있다. 생명력이 있을 때 썩지 않게 되고 맛이 있게 된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 모두가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2.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 한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겠는가? 세상 일을 하고 작품을 만들 때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대중 전도하고 대중 캠프하면 되겠는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과목 100점을 맞을 만큼 최선을. 우리 후대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학문에, 모든 면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1) 그리스도인 개인의 새로운 생활 / 골3:1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땅의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공부도 직장도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대중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능력을, 지혜를, 힘을 주실 것이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전인숙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소설가 황순원 씨 이야기를 했다.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학 분야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골3:5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 골3:8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무엇을 벗어 버려야 하는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당연한 것이다. 말씀을 전해야 할 입인데 상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같은 우물에서 단물과 더러운 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겠는가. 골3:9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거짓말하는 인생이 된다. 나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바른 말인지 거짓말인지 많이 느껴진다. 정말 당당해야 한다. 주님이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털어 버려야 한다.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 거짓말 인생을 살지 마라. 건강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 그러면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된다. 골3:10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주과학을 하면서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골3:12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2)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골3:13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살다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나.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나는 이것을, 진실한 사랑, 열정있는 사랑을 더하라고 설명하고 싶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3:15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 그러면서 골3:18-21에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가장 소중한 게 가정 아니겠나.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깨면 안 된다.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다. 미션 홀을 세워주는 것이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요즘은 반대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평화롭게 된다. (웃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즘은 다 반대다.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이 괴롭다. 그래서 아내들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 (웃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는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있다. (웃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목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싶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스릴까 함이라.” 자녀들이 아버지를 노엽게 하는 시대다. 시대가 포스트모던화 되면서 모든 윤리와 질서가 다 깨어지고 있다. 동성애 같은 것이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다. 위계질서가 없고 역할도 이상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와 질서를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보수가 보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의 원리를 잘 지킬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최선이 된다.

(4)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 직장 문제다. 그때는 노예가 있었다. 요즘 직장생활이 노예 생활 비슷하지 않은가? 골3:22를 보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인들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상사가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돌아다니고 눈가림만 하지 않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직장생활도 하시기를 바란다. 직장생활은 물론 상사 뒷담화를 하는 재미로 다니기는 하지만. (웃음) 그래도 자기 역할은 300%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골3:24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했다. 사장님들이 들어야 한다. 골4:1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아라.”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도와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상관들은 부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래야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5)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 골4:2에 말씀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겠는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6)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모델이 된 바울의 삶 /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뭐든지 대중 하면 되겠는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유효하겠는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누구보다 깊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대중 사역을 하지 않았다. 골1:24을 보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진정한 누람이다. 자기 역할도 안 하면서 놀러 다니는 것이 누람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누람이다. 힘들어도 내 목숨을 걸고, 에너지를 쏟아서 다락방을 해 주는 것이다. 다락방, 지교회 사역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가 지속을 못 한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문들이 열려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수고를 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골2:1을 보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그들의 상황을 알지 않나. 그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니까, 얼굴도 못 봤지만,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편지를 쓴다는 것이다. 이런 중심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뿌리내리기를 축원한다. 제2:10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다.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데에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누리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될 줄 믿는다.

결론 : 골로새서를 통해 붙잡을 기도제목과 실천 미션

몇 가지 기도제목과 실천 미션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많은 문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먼저 인사하고 칭찬한다. 문제는 저 뒤에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조심성 없이 이야기하고 상처를 쉽게 주지 않나? 상처에 소금을 확확 뿌리고 있다. 바울은 바른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그냥 막 읽으면 모르게 된다. 그래서 배경을 알고 보아야 한다.

(1) 우리는 바른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모르몬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종교다원주의, 지식만능주의, 진화론, 과학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

(2) 둘째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와 같이 지교회와 미션 홀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 이름이 안 나오지 않나? 골로새서 기록 이후 30, 40년 후에 요한이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수신자 중에 골로새 교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다.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강단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인 줄 알고 붙잡았을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 주어진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 레마로 붙잡고 변화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주변에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हम에게 일어난 것처럼(골4:15),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모든 학교와 지역, 직장 회장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3) 사도바울, 에바브라와 같이 헌신과 사랑, 노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은혜를 다시 새기고 그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4)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모델적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를 불러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소명과 사명과 천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은 자, 남을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뜨거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 실천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